

# 강원도, 세라믹산업 적극 육성

## 36억원 투입해 전자부품 패키지센터 완공 ... 매출 610억원

강원도가 세라믹 전자부품 패키지 지원센터를 완공했다.

강원도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소재 세라믹 전자부품 패키지(SoP: System on Package) 지원센터 준공식을 10월20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SoP 지원센터는 지식경제부와 강원도, 강릉시의 지원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총 36억원을 투입해 완공됐으며 건물면적 1890㎡에 창업보육실, 시험생산실, 연구실험실 등을 갖추고 SoP 분야의 세라믹 관련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강릉권을 중심으로 세라믹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부터 추진됐다.

2005-08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제1벤처공장을 완공했으며 창업 교육과 기업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 2008-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SoP용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와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릉과학산업단지에는 세라믹 신소재 지원센터, 반도체 부자재공장, SoP 지원센터, 신소재 1·2벤처공장 등이 건립됐고 62개의 신소재기업이 입주해 610억원의 매출과 44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또 산·학·관 네트워크로 인근 대학의 취업, 기업 연계 R&D 과제수행, 국책연구소 유치,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 산업클러스터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한편, 준공식에 이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강원권 세라믹 산업 상생발전>을 주제로 <KOREA 세라믹 신성장 포럼>이 열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8>